https://doi.org/10.18856/jpn.2026.32.3.001

한국 웹소설의 중국 선협물 수용과 변용
- 신자유주의적 서사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유인혁**

1. 들어가며
2. 자본주의 디스토피아 서사로서의 중국 선협물
3. 한국 선협물의 중국 선협물 수용과 변형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한국 웹소설이 중국의 신흥 장르인 '선협물(仙俠物)'을 수용하는 양상을 재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식적·주제적 굴절의 양상을 검토하는 데 있다. 중국 선협물이 자본주의 디스토피아를 재현하는 방식을 확인한 뒤, 한국 선협물이 이러한 서사관습을 어떻게 계승하고 변형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하나의 장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발생하는 번역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 선협물의 서사관습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선협물은 주로 자본을 갖추지 못한 청년의 인생역전의 이야기를 다룬다. 둘째, 선협물에서 '수도(修道)'의 체계는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고, 이는 각 단

* 이 연구는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대회 〈다시 만난 파시즘〉(2026.08.21)에서 발표했던 동명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값진 토론을 해주신 최혜령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
**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www.kci.go.kr

계를 밟아가는 성장 서사를 견인한다. 셋째, 수도자의 성장은 가혹한 경쟁 체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넷째, 선협물의 주인공은 성장과 경쟁에 몰두하는 이기적 개인의 형상을 띤다. 이러한 양상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디스토피아적 재현으로서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한국 선협물이 앞의 세 가지 관습은 대체로 계승하면서, 마지막 관습인 '이기적 개인'의 형상만은 이타적 인물형으로 굴절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적 변형이 주제의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그럼으로써 한국 선협물이 중국 선협물의 서사관습 일부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전유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글은 서사 장르가 새로운 역사적·지리적 조건에서 번역될 때 형식과 내용이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변형되는 구체적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글은 웹소설이라는 상업적 스토리텔링이 신자유주의적 세계상을 재현하는 동시에 그것을 비트는 문화적 실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럼으로써 웹소설 연구의 경제적/사회적 독법의 저변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선협, 웹소설, 대안 서사, 신자유주의, 디스토피아)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한국 웹소설이 중국 선협물(仙俠物)을 수용하는 양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선협물의 주요 서사관습을 점검한 뒤, 한국 선협물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식적·주제적 굴절을 수행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한국 독자들이 매료된 중

www.kci.go.kr

국 웹소설 선협물의 장르적 특징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재구성하여 한·중 웹소설 선협물이 공유하고 있는 서사적 욕망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선협물이 중국 선협물의 어떠한 요소들을 편집하거나 갱신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두 글쓰기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자세히 드러내겠다.

이 글에서 다루는 웹소설 선협물은 최근 한국 웹소설 플랫폼에서 새롭게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장르다. 이 글이 작성되고 있는 2026년 7월 현재, 네이버 시리즈에서 단어 '선협'이 제목에 포함된 작품은 총 57편이다. 카카오페이지는 209편, 문피아는 124편이다. 선협물의 주요 개념어인 '수선(修仙)'이 작품명에 포함된 사례를 보면 네이버 시리즈 70편, 카카오페이지 66편, 문피아 131편이다. 여기, 선협물이 한국의 웹소설 플랫폼에서 일정한 지분을 획득한 상황이 뚜렷하다.

이러한 선협은 2020년경 등장하여, 최근 급격한 성장을 거치고 있는 장르다. 선협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포함된 최초의 소설은 2020년 문피아에 연재된 탁목조의 〈대환장 통수 선협전〉으로 확인된다. 문피아에서 선협이 제목에 포함된 소설을 살펴보자면, 2021년에 1편(〈선협 속 무공천재〉), 2022년에 2편(〈대환장 길운 선협전〉과 〈선협의 세계〉)이 게재되었다. 그러던 것이 2026년에는 약 57편의 소설[1]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 간단한 스케치는 선협물이 2020년 즈음에 등장하여 비교적 최근에 급성장한 젊은 장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한국 웹소설 선협물의 원형은 중국의 선협(仙俠, xianxia) 장르다. 중국에서도 선협은 급성장하고 있는 신생 장르다. 선협은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어 문화권의 무협 장르와 서구 문화권에서 유래한 판타지 장르

1) 2026년 7월 30일 기준. 문피아는 자유연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재 작가 및 작가 지망생들의 창작 트렌드를 확인하기 용이한 플랫폼이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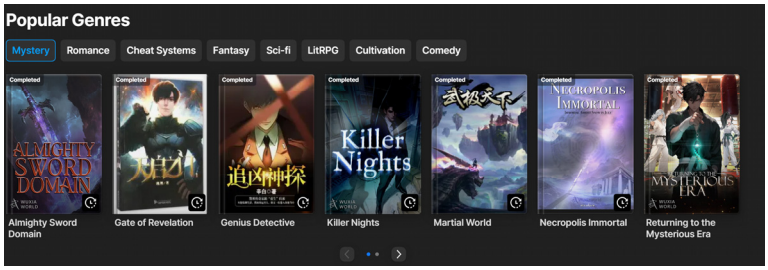
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위 장르로 설명할 수 있다.[2]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젊은 장르는 중국 독자층을 매료시켜, 보다 큰 갈래들과 동등한 영향력을 가진 문화로 삽시간에 성장했다. 그리하여 기점중문망과 같은 중국어 웹소설 플랫폼, WUXIAWORLD와 같은 중국어 웹소설의 영문 번역 사이트에서는, '선협/cultivation' 카테고리가 무협이나 판타지, 로맨스, SF와 같은 비교적 큰 범주의 장르와 나란히 소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3]

그렇다면 선협이란 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진 장르인가? WUXIAWORLD에 따르면, 선협이란 중국 도교의 신화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마법, 요괴, 귀신, 신선(神仙)과 다양한 중국 민간신앙·신화적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이 영생과 최강의 경지를 추구하며 신선의 경지, 즉 불멸에 이르기 위한 수도를 시도"하는 허구적 장르다.[4]

---

2) 기점중문망에서 선협을 표지로 등록된 작품은 총 236,460편이다. 이는 동양 판타지(玄幻/721,722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판타지(奇幻/159,241편)나 무협(45,378), SF(科幻/157,333)를 상회하는 수치다.(https://www.qidian.com, 접속일: 2026.07.31.)

3) 아래 그림은 중국 웹소설/웹툰 번역 플랫폼 웹노블닷컴(webnovel.com)의 메인 화면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그림은 선협 장르가 독자들에게 판타지나 무협과 같은 층위에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www.webnovel.com, 접속일: 2026.07.31.)



4) "fictional stories featuring magic, demons, ghosts, immortals, and a great deal of Chinese folklore/mythology. Protagonists (usually) attempt to cultivate to Immortality, seeking eternal life and the pinnacle of strength. Heavily inspired by Daoism." https://www.wuxiaworld.com/page/general-

www.kci.go.kr

이러한 정의는 선협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독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선협 장르는 대체로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는 바로 중국적 색채다. 위키백과는 선협을 "중국의 문학, 미술, 희곡, 영상물 및 비디오 게임 등 허구 작품에서 나타나는 고전 판타지 장르의 일종이다. 서구 판타지 문학의 '검과 마법' 장르와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으나, 선협은 주로 도교와 중국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 신화, 민간 전설, 지괴(志怪) 요소가 융합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5]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선협은 이른바 '판타지' 장르의 중국적 버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봉신연의〉나 〈서유기〉 같은 중국의 고소설, 〈촉산검협전〉(1932)과 같은 근대의 대중소설, 〈촉산:신촉산검협전〉(1983)과 같은 영화 역시 선협의 계보에 있는 텍스트로 이해된다.

선협 장르의 두 번째 특징은 캐릭터와 플롯의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협은 선(仙)의 세계에 입문한 수도자가 "불멸에 이르기 위한 수도"를 수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선협 작품 중 하나인 〈범인수선전〉(2008~2013)은 주인공 한립이 수선의 길에 입문하여 마침내 진선(眞仙)이라 불리는 초월자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많은 무협 작품의 주인공들의 목표가 중원의 최강자(절세고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협 작품은 신적 존재로 초월하고자 하는 주인공들을 다룬다. 이는 선협 장르의 명칭이 영어권 사용자에게는 수양(cultivation)이라고 번역되는 직접적인 이유다. 즉, 선협은 '불멸'을 위해 불철주야 수행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겠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자면, 선협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신이한 이야기 일체를 지시한다. 이에 따라 〈촉산〉이나 〈천녀유

---

glossary-of-terms. (접속일: 2026.07.31.)

5)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D%98%91 (접속일: 2026.07.31.)

www.kci.go.kr

혼〉, 〈너자〉와 같이 중국의 신화, 전설, 괴이를 다루는 기록문학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문화 텍스트들은 선협이라는 장르명으로 호명될 수 있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선협 장르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인터넷 글쓰기에서 나타난 비교적 분명한 관습을 공유하고 있는 일군의 글쓰기를 가리킨다.

최재용에 따르면 선협의 글쓰기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8년 〈범인수선전〉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고, 여기에 등장한 인물 유형, 세계관, 플롯 등이 중요한 장르적 참조점이 되었다.[6] 이는 다시 말해 〈범인수선전〉이 현대적 선협 장르의 중요한 결절점이라는 뜻이다. 〈범인수선전〉은 '불멸'을 추구하는 수도자들의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서사적 요소를 내세우고 수선의 경지에 대한 자세한 설정을 제공했는데, 이는 곧바로 다른 글쓰기들에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이 글에서 더욱 중요한 맥락은 〈범인수선전〉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스토리텔링들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어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앞서 열거한 한국 선협 장르의 리스트들이 이를테면 〈봉신연의〉나 〈서유기〉, 혹은 〈천녀유혼〉이나 〈촉산〉, 〈너자〉와 같은 도교적 색채의 대중서사와 거의 무관하다는 뜻이다. 한국 선협물은 직접적으로 중국 웹소설 〈범인수선전〉 및 기타 선협물들의 번역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 〈범인수선전〉은 2017년에 〈학사신공〉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를 시작했다. 이러한 제목은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선협물이 한국 독자들에게 아주 낯선 장르였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는 '수선'(修仙)이라고 하는 선협 장르의 용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한국어 제목을 정한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총 조회수 1억 7천만회

6) 최재용, 「의/협의 변천사— 최근 중국 인터넷 '선협소설'에서의 의/협 개념」, 『중국소설논총』 제44호, 한국중국소설학회, 2014, 315-322쪽.

www.kci.go.kr

를 달성함으로써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범인수선전〉의 한국배급사 '판오름'은 이후, 〈선역〉, 〈장생종 연단종사〉, 〈광음지외〉, 〈수양타수선〉을 비롯한 선협 작품 약 27편을 중국어 원제 그대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는 아마 〈학사신공〉의 성공에 고무된 결과로 보인다.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독자들은 선협의 세계관에 접촉했으며, 낯선 중국어 제목 및 용어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사신공〉이 연재를 시작한 지 3년 뒤인 2020년, 한국어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선협물들이 문피아나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와 같은 웹소설 플랫폼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한국 웹소설의 주요 하위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글은 〈범인수선전〉 등 중국 선협물의 장르적 공식들이 한국 선협물에 어떻게 참조되었는지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는 물론 한국 선협물이 중국 선협물의 장르적 특징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재생산하는지 살펴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범인수선전〉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선협물은 선(仙)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무위자연(無爲自然)이나 오상아(吾喪我)와 같은 도가의 핵심 철학과는 전연 무관한 세계를 무대로 한다. 이곳의 수도자들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자들인데[7],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악행도 스스럼없이 저지를 수 있다. 이 비정한 이기주의자들의 세계는 도가의 그것과 하나도 닮지 않았다.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선협의 잔혹한 세계는 극단적인 형태

7) 선협물에서 수도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설정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 특히 수도자들은 하늘이 내린 수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천벌의 일종인 '천겁'(天劫)을 견뎌야 한다. 이는 선협의 세계가 자연의 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거스르는 인간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www.kci.go.kr

로 상상된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에 가깝다. 즉, 선협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비정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칙들은, 동시대 중국인 및 한국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허구적 은유다. 이어지는 2장을 통해서는 중국 선협물의 수도 세계가 어떻게 디스토피아적인 자본주의 세계를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독자들이 단순히 허황한 초인들의 세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적 주체의 모델에 매료되었다는 점을 밝히겠다.

다음으로 이 글은 한국 웹소설이 중국 선협물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형시켰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대중적 인기를 확보한 선협물들은 대체로 중국 선협물의 주요 관습들을 차용했지만, 부분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적 변형은 주제적 변화를 야기했다. 즉, 한국 웹소설 선협물은 '비정한 자본주의 세계'를 다루면서, 그 세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서사를 생산했다. 이 글의 3장에서는 한국 선협물이 대안적인 스토리텔링을 궁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중국 선협물의 관습과 주제의식을 변형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자본주의 디스토피아 서사로서의 중국 선협물

선협 장르에 대한 비평적 평가는 흥미롭게도 모순적이다. 한편으로 선협 장르는 중국의 토착적 문화 장르로서 주목받는 경향이 있다. 류호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신흥 장르인 선협을 유력한 IP로 성장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다. 즉, 선협은 "서구와는 또 다른 상상력으로 중국 특유의 초자연적 세계를 창조"하는 사례로서 주목받았는데, 이는 이른바 '글로컬'이라고

www.kci.go.kr

하는 세계적·시대적 맥락 속에서 중국이 "전통문화자원을 개발하고 발전" 하려는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8] 이때 선협은 중국풍의 웹소설이 "중국 권역 내에서만 소비되는 오락적 대중문화상품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문화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열리는 지점"으로서 기대된다.[9]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선협 소설이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성격을 가진다는 데 주목했다. 선협 소설에서 '수도계'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이 적용되고 있어, 신선에 이르는 길은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10]는 잔혹한 여정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 즉, 선협의 세계는 이를테면 〈쿵푸팬더〉 식의 동화적·환상적인 오리엔탈리즘의 세계이기보다는, 가혹하고 비정한 지옥과 같다.

이에 따라 많은 비평가들은 선협소설이 중국 사회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11] 황신카이는 선협 소설에 경쟁의 메커니즘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현대 중국에서 자본주의 성장에 따른 '사회 전반에 걸친 긴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12] 최재용은 선협소설의 주

8) 류호현, 「선협(仙俠)의 위상변화와 확장적 스토리텔링 전략 — 세계 창조 기술로서의 선협」, 『중국학논총』 제73호, 중국학연구소, 2021, 225쪽.

9) 위의 글, 225쪽.

10) "잘 기억해 둬라. 신선계는 굉장히 잔혹한 곳이야. 약육강식의 세상이지.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이근, 〈선역〉, 네이버 시리즈, 28화.

11) 이것은 물론 온라인 문화와 그 생산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선협 소설의 환상적인 측면은 현실 세계에 대한 도피로 곧잘 해석되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중국 웹소설 및 인터넷 대중문화가 "중국과 같이 공격적으로 산업화되고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 인간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가혹한 현실과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장 등과 일정 부분 공명하고 있다. (Shih-chen Chao, "The Re-Institutionalisation of Popular Fiction: The Internet and a New Model of Popular Fiction Prosumption in China", *Journal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3* ,2013, p.36)

12) Xinkai Huang, "To Become Immortal: Chinese Fantasy Literature Onlin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XX: 2*, 2011, p.128; Heather Inwood,

www.kci.go.kr

인공들이 의나 협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거의 보여주지 않으며, 성공을 위해 지극히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것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도덕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은 선협소설의 독자들에게 불만이나 탄식의 정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이 자연화되어 있는 중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13] 니장거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중국 선협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 "국경을 넘어선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화적 반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4][15] 정리하자면 중국 선협은 중국 문화산업의 활력 및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콘텐츠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의 어둠을 암시하는 텍스트다.

다음으로는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 비평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장르적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범인수선전〉의 한국어판인 〈학사신공〉, 그리고 〈선역〉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겠다.[16]

"What's in a Game? Transmedia Storytelling and the Web-Game Genre of Online Chinese Popular Fiction", *Asia Pacific Perspectives* 12(2), 2014, p.8.

13) 최재용, 「의/협의 변천사— 최근 중국 인터넷 '선협소설'에서의 의/협 개념」, 『중국소설논총』 제44호, 한국중국소설학회, 2014, 324쪽.

14) Zhange Ni, "Xiuzhen(Immortality Cultivation) Fantasy : Science, Religion, and the Novels of Magic/Superstition in Contemporary China", *Religions* 11, 2020, p.12.

15) 중국은 국가 주도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경제적·사회적 원리로 적극 도입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은 앨빈 소·인화 츄, 「중국의 국가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모순」, 『아시아 리뷰』 제6권 2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7, 121-142를 참조.

16) 〈범인수선전〉은 현재 기점중문망에서 총 추천회수 1615만, '즐겨찾기'가 394만으로 선협 장르 완결소설 부문에서 총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역〉의 경우 9위이다. 흥미롭게도 〈범인수선전〉의 속편인 〈범인수선전 선계편〉이 3위, 〈선역〉의 작가인 이근의 〈일념영항〉이 4위다. 두 작품이 가진 장르 내 영향력과 대중적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www.kci.go.kr

앞서 정리했던 것처럼 선협 장르는 중국 도교적인 세계관 및 배경을 무대로 하여, 주인공이 '불멸에 이르기 위한 수도'를 수행하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① 주인공은 물질적·비물질적 자본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수도 세계에 뛰어든다. 그는 수련을 도와줄 수 있는 화폐자본, 그리고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리하여 그의 수도행은 자연스럽게 밑바닥에서 꼭대기를 향해 움직이는 '사회적 사다리(social ladder)'의 이야기가 된다.

〈범인수선전〉은 제목에서부터 이러한 플롯 유형을 표현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제목을 통해 〈범인수선전〉의 주인공이 결코 신이한 출생을 겪거나 고귀한 신분을 가진 영웅 및 재자가인이 아니라, 평범한 장삼이사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범인이 자신을 갈고 닦아 발전하는 모습(修)을 기대하며 독서를 시작하게 된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자. 〈범인수선전〉은 주인공 한립이 칠현문이라고 불리는 조직에 입문하며 시작된다. 여기서 작가는 한립의 계급적 처지를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스케치한다. 한립은 약 서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칠현문에 입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입문 시험을 보러 온 아이들은 눈에 띄게 세 부류로 나뉘어 있었다." 즉, "비단옷을 입고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던 한 소년", 도시[城]에서 자라 "강자와 약자를 구별하는 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부유한 소년을 추종하는 아이들, 그리고 한립이 속한 "태어나서 지금까지 촌에서 먹고 자라고 자연을 벗 삼아 살아온 아이"의 부류다. 독자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범인수선전〉이

부분이다. https://www.qidian.com/finish/. (접속일: 2026.08.08.)

www.kci.go.kr

"다른 아이들에게 위축되어 큰 소리로 떠들지" 못하고 있는 소년의 입신출세담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립은 영웅다운 힘이나 타고난 재주 역시 갖추지 못했다. 선협 세계에서 수도자들은 '영근'이라 불리는 태생적 자질을 갖고 있다. 이 영근은 수도자의 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립은 천영근, 지영근, 위영근이라는 상·중·하의 영근 중 가장 낮은 품질인 위영근을 가지고 있다. 〈범인수선전〉은 이렇듯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유전자, 재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주인공이 인생역전하는 이야기다.

〈선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복된다. 〈선역〉의 주인공 한제는 "첩의 둘째 자식이었으므로 가업을 이을 수 없었"던 아버지를 두고 있다. 한편 한제에게는 소년답지 않은 초인적인 끈기와 인내심이 있다. 하지만 수도자로 성공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자질을 가졌다. 그는 자질이 부족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 던져져 차별대우를 당하고, 또한 비슷한 처지의 소년들에게서 온갖 모욕을 받기도 했다. 즉, 〈선역〉은 〈범인수선전〉과 마찬가지로 성공을 위한 적절한 자본을 갖추지 못한 소년의 성공을 서사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금세 다른 작품들에 영향을 미쳐 선협물에서 일반적으로 반복·재생산되는 장르적 관습이 되었다.

② 선협물에서 수도의 길은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다. 〈범인수선전〉에서 수도의 길은 연기(炼气), 축기(筑基), 결단(结丹), 원영(元婴), 화신(化神), 연허(炼虚), 도겁(渡劫)이라는 수준을 통과하고, 마침내 진선(眞仙)이라 불리는 진정한 초월자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의 고련을 요구한다. 이를테면 비교적 낮은 경지인 연기기는 일반적으로 약 200년의 수련을 요구한다. 축기기의 경우 600년을 요구한다. 그러다 중간 단계인 연허기에 이르면 수련기간이 아예 수천 년으로 늘어난다. 〈선역〉도 응기, 축기, 결단, 원영, 화신, 영변, 문정 등의 여러 단계의

www.kci.go.kr

수련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를 올라설 때마다 요구되는 수련의 시간과 노력이 늘어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러한 수도의 체계는 선협물의 장르적 관습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수도자 주인공이 길고 고된 수선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선협물의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특징은 선협물이 대개 초장편의 형식을 띤다는 점과 연결된다. 예컨대 〈범인수선전〉은 2,243화, 〈선역〉은 총 1,587화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 즉, 선협물의 독서란, 수천 년의 수련을 수천 화의 분량에 걸쳐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선협물의 독자들에게 있어 이 길고 고된 수선의 과정은 그 자체로 장르적 쾌락이 발생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한편으로 선협물이 독자에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성장과 성취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레벨업'을 향한 끊임없는 압박에서 벗어나, 잠시 거리를 두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내적 플롯의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구조화된 성장과 목표 지향적인 레벨업을 강조"하면서, 독자들이 탈출하고자 하는 "성취와 생산성의 논리를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17] 이때 선협물은 독자들에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성장을 환상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동시에, 성장과 생산성이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긍정적'인 덕목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스토리텔링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③ 선협물의 세계는 가혹하게 경쟁적이다. 그래서 선협물의 인물들은 다른 사람의 자원을 강탈하거나 착취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이것

17) Morgan Yu Hao, "Cultivation games and cosmotechnics: Reimagining Sinofuturism in Chinese cultivation narratives", *Global Media and China,* 11(2), 2026, pp.267-282.

www.kci.go.kr

은 선협물에서 성장이 가장 중요한 서사적 목표라는 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협물에서 수도의 길은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다. 선협물의 주요 인물들은 이 세분화된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련의 경쟁은 두 가지 이유로 과열되어 있다. 첫째, 수련은 다만 자신의 경지를 높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 선협물에서 모든 수도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평범한 수도자가 연기기 수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다. 연기기 수도자가 되면 약 200년까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기기 수도자가 축기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다. 축기기 수도자가 되면 약 600살까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자가 마침내 진선이 되어 불멸에 이르기까지 되풀이된다. 여기서 수도는 순환적인 회로를 형성한다. 수도자가 경지를 높이는 이유는 더 오래 살기 위해서다. 반대로 수도자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그래야 더욱 수련하여 경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자기보존욕과 결합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자리매김한다.

둘째, 선협물 안에서 경지를 높이는 데 필요한 자원은 유한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도자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른 수도자들과 경쟁하게 된다. 〈범인수선전〉과 〈선역〉의 내용은 수명이나 경지를 높여주는 단약(丹藥)이나, 그러한 단약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약초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짧게 요약하자면 선협물은 희소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장을 서사화하고 있다. 이 경쟁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하다.

한편, 수도자들은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수도자들을 착취하거

www.kci.go.kr

나 약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범인수선전〉에서 문경인은 주인공 한립의 스승이다. 그러나 문경인과 한립은 많은 무협소설의 사제처럼 의리와 인정으로 엮이지 않았다. 문경인은 오로지 자신의 수도를 위한 도구로서 한립을 사용한다. 이 사용의 범위는 인간의 도덕적 경계를 쉽게 넘어선다. 문경인은 한립을 통제하기 위해 독을 먹이는가 하면, 영혼을 옮겨 한립의 육체를 강탈할 음모를 세운다. 〈선역〉의 주인공 한제 역시 스승인 손장로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 손장로는 한제가 가진 보물을 탐내고 있다. 그리고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한제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에 따라 〈범인수선전〉과 〈선역〉의 초반부는 스승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ㄱ) 그가 문대인의 몸을 빼앗는 것을 이렇게 내켜하지 않았던 이유는, 선인의 길을 걷는 이들 사이의 삼대철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수행자는 함부로 범인의 몸을 빼앗을 수 없었다. 이유는 몸이 견디지 못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오직 법력이 강한 자만이 법력이 약한 자의 몸을 빼앗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반격이 있을 터였다. 법력의 차이가 서로 클수록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었다.

셋째, 모든 수행자는 법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생에 단 한번만 몸을 빼앗는 술법을 행할 수 있었다. 만약 다시 시도하게 되면 수행자의 원신이 소멸해 버리는 것이었다.

이상의 세 가지 원칙은 무수히 많은 수행자들에 의해 이미 증명되었다. (왕위, 〈학사신공〉, 카카오페이지, 24화)

ㄴ) "그래, 영기 조롱박을 찾으려면 영기를 알아야지. 아깝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일단 빨리 저놈을 응기 1단계로 들여서 수련자로 만들고, 내 수혼술을 쓰는 게 낫겠어. 그럼 규율을 어긴 것도 아니니까 말이지."

www.kci.go.kr

> 수혼술은 간단한 선인술이지만 상당히 잔인하고 악랄한 술법이었다. 수혼술을 당하면 영혼이 육신에서 뽑힌 탓에 즉각 사망하거나 강제로 유체이탈을 당하게 된다. 죽음을 피한다 해도 평생을 멍하고 아둔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대산파에서는 수혼술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 결단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수련자는 절대로 일반인에게 수혼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자신도 똑같이 수혼술을 당한다. 하지만 그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수련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중략) 그러니 손장로는 한제를 수련자로 만든 후, 자신의 수련 단계가 퇴보하더라도 수혼술을 써서 조롱박이 있는 곳을 알아내려는 계산이었다. (이근, 〈선역〉, 네이버 시리즈, 10화)

흥미로운 것은 선협물에서 이러한 비정한 인정세태가 일종의 자연법칙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인용문 ㄱ)은 〈범인수선전〉의 한국어 번역본인 〈학사신공〉의 한 단락이다. 여기서 주인공 한립은 문경인의 공범 임자동으로부터 몸을 빼앗는 술법을 둘러싼 자초지종을 듣고 있다. 여기서 몸을 빼앗는 수법은 비인간적이며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험이 따르는 수법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양상은 〈선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수혼술이라는 일종의 세뇌 수법은 범인에게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같은 수도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선협물에서 수도자의 세계가 일반적인 인간의 도덕관·윤리의식과는 전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선협물의 세계에서 수도를 한다는 것은 인간성을 버린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립과 한제는 모두 극의 초반에 이러한 점들을 '스승'을 통해 깨닫게 된다.

④ 선협물의 주인공들은 극히 이기적이다. 이것은 문경인이나 손장로와 같이 노골적인 악역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 역시 자기의 이익

www.kci.go.kr

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간이다. 이것은 수도의 길이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의 수라도이기 때문이다. 즉, 타인을 착취하는 것이 일종의 자연법칙처럼 통용되는 세계에서, 자기보존을 위한 이기심은 가장 중요한 행동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협물에서 이기주의는 비단 생존을 위한 투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절대적인 원리로 자리 잡는다.

> 소설 초반에는 묵 선생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자 할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지만, 99장에서는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마저 자신의 수도를 위해 단칼에 끊어 버리는 것이다. 이후 그의 가족들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옛 임협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동도 선협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는 연인도 잠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다가, 계속 등장해야 할 실리적인 이유가 없어지면 은근슬쩍 소설에서 사라져 버린다. 선협소설의 주인공들은, 가족이나 친인에 대한 감정적, 도덕적 책임감 때문에 얽매이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18]

이러한 부분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생활의 소멸이다. 최재용의 분석에 따르면 〈범인수선전〉의 주인공 한립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무감·무정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는 처음에 가족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수도를 위해" 사적인 인연을 단칼에 끊어 버리는 무정한 수도자가 됐다. 그는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는 연인"도 '실리적인 이유'가 없어지면 멀리한다. 즉, 그의 모든 의식은 '자신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적인 친밀성 관계를 맺거나 공동체에게 헌신하고 싶다는 욕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이다. 자기 자신 이외에는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18) 최재용, 앞의 글, 320쪽.

www.kci.go.kr

여기까지 살펴보게 되면, 이 소설이 중국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의 문화적 반응으로 읽혔던 이유가 명확해진다. 중국 선협물은 ① 별다른 자본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②무한한 성장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추구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③청년의 성장은 굉장히 가혹한 경쟁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④그 과정에서 청년은 일반적인 도덕관념은 물론이거니와 사적인 친밀성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된다. 여기,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덕과 인정의 차원이 축소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 선협물 독자들이 비도덕적인 주인공에 몰입한다는 점은 많은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재용은 독자들이 선협물 주인공의 비윤리성과 이기주의에 열광하는 현상을, 중국 청년들이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상징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으로 보았다.[19] 황신카이 역시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현실 세계의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 갱스터적 삶을 선호하는 중국 청년들의 내면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20] 니장거의 경우 선협물 스토리텔링이 중국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신자유주의적' 명령, 즉 자신을 소유·통치·경영하며 끊임없이 상승해 자본주의적 흐름에 통합되려는 주체로 발전하라는 요구에 대한 문화적 응답이라고 주장했다.[21] 여기서 중국 선협물은 중국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비판적인 상상력으로서, 일종의 리얼리즘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글쓰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온당하다. 디스토피아적 재현은 흔히 그 세계를 상대화·비판하는 미적 작업이며, 중국 선협물 역시 가혹한 자본주의 현실의 환상적 재현으로서, 비판적 서사의 잠재력을 지닐 수 있다.

19) 최재용, 앞의 글.
20) Xinkai Huang, 앞의 글, p.128.
21) Zhange Ni, 앞의 글, pp.14-21.

www.kci.go.kr

그러나 독자들의 일차적 반응이 매혹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선협물의 장르적 특징은 자본주의 디스토피아 세계 자체에 대한 매혹, 그리고 그 세계를 돌파하는 주체성에 대한 선망과 동일시를 보여준다. 선협물의 악당 주인공들이 매혹적인 이유는 그들이 끝없는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적 명령을 환상적이면서도 매력적인 형태로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협물의 디스토피아적 세계는 자본주의 현실의 극단적 허구화 형태이며, 그 주인공들, 한립과 한제를 포함하여, 막스 베버가 말한 자본가 정신이 괴물로 위장한 형상에 가깝다.[22] 이들에게 수련은 자기목적적이다. 경지를 높이려는 이유는 오직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다. 그들이 긴 수명을 바라는 이유 역시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다. 이 점에서 수도자는 무한한 성장과 축적을 추구하는 자본가의 은유로 읽힌다.

수도자들의 악행은 인간적이라기보다 비즈니스적이다. 타인을 착취·살해·포식하는 행위들은 나쁜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설령 품성이 나쁜 수도자가 있더라도, 그의 악행은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는 체계 자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독자들이 한립이나 한제 같은 비정한 인물에게 매혹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중국 현실의 문제를 대표하거나, 그것을 극복할 상징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자본주의의 대표적 주체성, 즉 끝없는 성장과 축적을 수행하는 자본가를 예시하기 때문에 매혹적이다.

---

22) 막스 베버에 따르면 자본가는 "자기 목적으로 전제된 자본증식에 대한 관심을 개인의 의무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가진 주체다(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옮김, 길, 2010, 75쪽). 요컨대 자본가는 쾌락을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돈을 번다. 이러한 인물의 성격은 인세의 쾌락이 아니라 더 많은 수명을 위해 정진하는 수도자들과 유비적이다.

www.kci.go.kr

3. 한국 선협물의 중국 선협물 수용과 변형

이 장에서는 중국 선협물의 한국적 수용 및 변형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선협물은 한국에서 새롭게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유력 장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콘텐츠가 한국적으로 토착화하는 양상을 자세히 드러내는 한편, 중국 선협물의 장르적 관습과 주제의식이 변화하는 지점들을 예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웹소설 플랫폼에서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작품들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회귀수선전〉(네이버 시리즈, 조회수 4829만), 〈선협식 수련에 드래곤 하트를 더하면〉(네이버 시리즈, 조회수 911만), 〈선협에서 상태창 개발하기〉(네이버 시리즈, 조회수 791만), 〈나노공학 선협전〉(네이버 시리즈, 조회수 709만) 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상업적 성공작들을 대상 텍스트로 선정한 것은 이른바 '히트작'들이 비평적 가치를 담보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 독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선택받은 스토리텔링의 유형들을 살펴보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한국 선협물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방향에서 수행될 것이다. 첫째, 이 글은 한국 선협물이 중국 선협물의 일반적 장르 관습들을 어떻게 수용·계승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 선협물이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의 재현'이라고 하는 양상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 글은 한국 선협물이 중국 선협물의 장르 관습을 굴절시키는 지점을 살펴볼 것이다. 중국 선협물의 주요 관습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펴보겠다. 그럼으로써 선협물의 주된 주제의식과 장르적 쾌락이 변화하는 지점을 조망할 것이다.

www.kci.go.kr

앞서 우리는 중국 선협물의 장르적 특징을 총 네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다시금 정리하자면, ①적절한 자본을 갖추지 못한 청년의 인생역전담, ②정교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수도'의 체계 및 그와 결합된 성장의 플롯, ③가혹한 경쟁체제, ④성장과 경쟁에 몰입한 결과 나타나는 이기주의다. 그리고 여기서 앞의 세 가지는 한국 선협물에서도 대동소이하게, 혹은 강화된 형태로 재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한국 선협물이 중국 선협물의 관습을 수용·계승·발전시킨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마지막 ④의 경우 대개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다.

우선 한국 선협물의 중국 선협물 수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바로 ①이다. 〈회귀수선전〉의 주인공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한국 웹소설 '이세계물'과 유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는 '선협물'의 세계에서 눈을 떠, 거기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 우리는 산사태에 휩쓸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기이한 세상에 와 있었다. 꼬리가 세 개인 집채만 한 여우. 머리가 두 개인 붉은 비늘의 커다란 뱀. 그리고, 검을 탄 채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괴인들이 있는 세상. 내가 가끔 보던, 선협소설들과도 같은 세상에 떨어진 것이었다. 기이한 세상이었지만, 우리는 잘 적응했다. 아마,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전부 잘 나갔을 것이다. 나만 빼고. 같은 차를 탔던 김 부장, 오 차장, 전 과장. 강 대리, 오 대리, 김 주임. 이들 중 전 과장과 강대리, 오 차장은 이 선협 세상에 떨어진 지 사흘 째에. 수선 문파 장로들의 눈에 띄어 제자가 되었다. 오대리는 나흘째 웬 선풍도골의 사내가 지나가다가 자신의 혈족으로 삼겠다며 데려갔고, 김주임은 나흘째 저녁에 커다란 기관 괴뢰를 탄 노인이 김주임의 특수 능력을 보고는 뛰어난 자질이랍시고 데려갔다. (중략)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보았다. 나만 빼고. 나는 아무런 재능도, 자질도, 특수한 능력도 가지지 못했다. (엄청난, 〈회귀수선전〉, 네이버 시리즈, 1화)

www.kci.go.kr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주인공 서은현이 아무런 자본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은현의 동료들은 모두 특수한 재능이나 자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미셸 푸코가 "인적 자본의 유전적 요소"라고 불렀던 것, 개인의 신체에 아로새겨진 타고난 역량의 자본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23] 〈선협식 수련에 드래곤 하트를 더하면〉의 주인공 한유진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집안 경제가 무너지고,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혼과 함께 도망쳐 버리고",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취직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학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꾸역꾸역 다니고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기 힘든 상태다. 요컨대 선협물의 주인공들은 중국 선협물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사회 시스템의 밑바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한국 선협물은 중국 선협물과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꼭대기까지(from the bottom to the top) 올라가는 사회적 이동성의 플롯을 전개하게 된다.

두 번째 패턴 역시 한국 선협물에서 대동소이하게 반복된다. 한국 선협물은 중국 선협의 수도 체계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예를 들어 〈회귀수선전〉의 주인공은 단수기, 연기기, 축기기, 결단기, 원영기, 천인기, 사축기, 합체기, 성반기라는 단계를 통과하여 결국 진선(眞仙)이라 불리는 초월자로 거듭난다.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단계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범인수선전〉이나 〈선역〉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상의 유사성은 곧바로 플롯의 유사성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회귀수선전〉의 이야기는 주인공 서은현이 평범한 인간에서 시작하여, 수련과 고행을 통해 단수기, 연기기 등 수선의 여러 경지들을 통과해가는 과정 그 자체다. 즉 개인의 성장이 플롯 자체에 통합되어 있다. 이것은 〈선협

23)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심세광 옮김, 난장, 2012, 322쪽.

www.kci.go.kr

의 뱀이 되었다〉, 〈선협식 수련에 드래곤 하트를 더하면〉을 비롯한 다른 선협물 역시 공유하는 특징이다. 각각의 작품들 안에서는 경지나 공법의 이름, 악역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장을 거듭하는 이야기라는 기본틀은 반드시 유지된다.

세 번째, 선협 세계의 가혹한 경쟁 및 비정한 수도자의 세계 역시 한국 선협물의 주된 내용이다.[24]

ㄱ)

"막리세가는, 범인들의 정혈과 선천진기를 모아, 수도자들의 수명을 늘리는 금단의 영약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 영약의 재료 수급을 위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빈민층을 잡아다가 갈아 넣어 약을 만들고 있다!"

"…!"

나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 무, 무슨…."

범인들의 정혈과 생명력으로, 약을 만든다고? (엄청난, 〈회귀수선전〉, 네이버 시리즈, 22화)

ㄴ)

적을 죽이고 잡아먹어 자신의 양분으로 삼는 것. 누군가는 이런 방식을

24) 이것은 한국 선협물이 중국 선협물에 대한 메타장르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 선협물은 중국 선협물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이세계물, 빙의물, 환생물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선협물은 전형적인 중국 선협물의 세계 자체에 대한 허구적 글쓰기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회귀수선전〉은 주인공이 선협의 세계로 차원이동하는 이야기이며, 〈선협의 뱀이 되었다〉는 선협의 세계에 환생하는 이야기다. 〈낭선기환담〉의 경우 선협 세계에 빙의하는 이야기다. 이때 한국 선협물은 전형적인 중국 선협물의 세계를 상상한 뒤, 거기에서 새롭게 모험을 떠나는 인물들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전형적인 세계는 다름 아닌, 가혹한 경쟁과 비정한 수도사들의 세계 그 자체다.

www.kci.go.kr

> 야만스럽다 깔보겠지만 이는 야성(野性)인 동시에 엄연한 수행의 도였다. 인족의 전승이 성립되기도 전부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태고의 도, 어쩌면 태초의 도일지도 모른다. 생명이 존재하고 경쟁이 존재한 이후 단 한번도 끊김 없이 이어져온 수행의 방식. 제경은 이 세계에 태어난 후부터 줄곧 그 길을 걸어왔고, 이제야 비로소 그 길을 이해했다. (중략) 나의 피와 살을 걸고 상대의 피와 살을 탐하는 것이다. (판다공자, 〈선협의 뱀이 되었다〉, 네이버 시리즈, 28화)

인용문 ㄱ)은 〈회귀수선전〉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의 자원에 다름 아니다. 그들은 마치 자연에서 나온 물질들이 인간에게 소화되는 것처럼 소비된다. 여기서 우리는 끔찍한 자본주의의 은유를 발견할 수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은 인간을 착취함으로써 잉여가치를 만들어낸다. 인간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단약은 이러한 착취가 공포스럽게 허구화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 ㄴ)은 〈선협의 뱀이 되었다〉의 한 장면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제경은 본래 현실 세계의 인간이었지만, 선협 세계의 뱀으로 환생했다. 그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며 인간의 도(道)가 자연의 법칙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에 따르면 수행의 본질은 약육강식이라는 자연법칙을 따른다. 그것은 "적을 죽이고 잡아먹어 자신의 양분으로 삼는 것"이며, "나의 피와 살을 걸고 상대의 피와 살을 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인식 안에서 삶, 나아가 성장은 반드시 타인을 착취하고, '소화'함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한국 선협물 역시 중국 선협물에서 두드러지는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적 성격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웹소설 역시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환경 및 자기관리·자기개발을 통해 성장에 몰두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

www.kci.go.kr

를 재현해왔음을 생각할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25] 즉, 중국 선협물에 나타난 비정한 각축장은, 사실 한국 웹소설에서 얼마든지 쉽게 수용될 수 있고, 호환가능한 스토리텔링 요소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선협이 주로 씨름하는 이데올로기는 국경을 넘어선 신자유주의"[26]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한중 웹소설이 모두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흥미로운 문화적 증상이자 서사적 형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대목은 한국 선협물과 중국 선협물의 차이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중국 선협물의 인물들은 이기적 개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 선협물의 인물들이 반드시 악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들은 경쟁에서의 승리와 자기 자신의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두기 때문에, 공동체나 사적 영역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그들은 수백, 수천 년에 이르는 수도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적 인정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욕망을 초월한 주체들이다.

그런데 많은 한국 선협물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중국 선협물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 선협물의 주인공들은 자기 공동체를 돌보는 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친밀성의 영역을 확보하는 일에 열심이다.

> 제자들의 생(生)이 여실히 느껴졌다. 귀기가 짙어졌지만, 살기와 독기가 더더욱 짙어졌지만. 그럼에도 만호는 계화를 좋아한다. 열오는 만두를 먹을 때 가장 기뻐한다. 청야는 휴식을 취할 때 새삼 행복한 의념을 내뿜는다. 계화는 무공에 열심인지라 내게 칭찬을 받으면 희미하게 기뻐하는 것이 느껴진다. 성진은 민들레를 볼 때마다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슬퍼한다.

---

25) 조형래, 「게임 판타지 웹소설의 정동적 메커니즘 : 『나 혼자만 레벨업』을 통해 본 후기 자본주의적 주체성의 재구성」, 『동서인문학』 제69호, 동서인문학회, 2025, 161-189쪽.

26) Zhange Ni, 앞의 글, p.12.

www.kci.go.kr

> 진삼은 내가 자세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한다. 희아는 수도가문의 지나가던 잘생긴 자제 중 한 명을 보고 그때부터 그를 연모한다. 이들은, 모두 살아 있다. 그리고 나는, 이들이 절대 죽는 것을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엄청난, 〈회귀수선전〉, 네이버 시리즈, 29화)

위 인용문은 〈회귀수선전〉의 한 장면을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서은현은 인간을 재료로 단약을 만드는 '마도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서은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종의 소년병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그는 소년·소녀들을 가르치는 와중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단념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인공 서은현이 성장과 경쟁에 몰두한 이기적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경쟁에 필요한 비정한 선택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생존이나 성장, 승리보다는 친밀성에 기초한 돌봄, 도덕주의적 인간성을 우선시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캐릭터는 선협물의 플롯을 굴절시킨다. 우리가 〈범인수선전〉과 〈선역〉에서 확인했던 바, 선협물은 성장을 지상과제로 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두 작품은 모두 무정하고 비정한 심성을 무기 삼은 주인공이, 가혹한 경쟁을 통과하며 승승장구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회귀수선전〉의 주인공 서은현은 타인에게 강하게 감응(affect)하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그는 가혹하고 비정한 선협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고, 나아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때 〈회귀수선전〉은 수라도와 같은 세계에서 인간성을 지키는 일의 어려움을 재현하는 작품이 된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장르의 굴절(bending)이다. 즉, 주인공의 캐릭터에 변형을 가함으로써 전형적인 선협 세계를 전혀 다른 방

www.kci.go.kr

식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관습을 일부러 위반함으로써 장르의 경계를 갱신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르적 패러디는 〈회귀수선전〉뿐만이 아니라, 한국 선협물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ㄱ)

그렇게 부지런히 달리다 보면, 그는 자연스레 점점 더 강해지면서 S급 헌터조차 아득히 뛰어넘게 될 터였다. 그때가 되면 단순히 헌터 활동만으론 이래저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 분명했다. 카르마를 쌓는 일에서든, 개인적인 보람을 느끼는 일에서든.

'여기를…… 이 지구를 내 영지로 삼는거다.'

문득 떠오른 발상이었지만 그보다 더 적합한 게 또 없었다. 이 지구는 그의 고향이자 본진이며 유일한 카르마 수급처다. 현실의 몸으로 다른 세상에 정착할 수 있지 않다면, 좋으나 싫으나 이곳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고 발전시켜야만 한다.

'지구 전체를 내 것으로 여기면서 지키고 발전시킨다. 내 수선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온갖 세계의 다양한 지식을 함께 적절히 풀면서.'(오늘오후에, 〈선협식 수련에 드래곤하트를 더하면〉, 네이버 시리즈, 33화)

ㄴ)

"문 장로! 이 정도면 나는 확실하게 연단사 중품 삼급으로 승급할 자신이 있네. 그렇게 만들어진 영단으로 연신기 제자들의 역량을 높이면 본 문의 위세도 한층 높아질 터이고 말이네. 자네가 통 크게 양보한 덕분이니 나중에라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장문진인의 얼굴을 봐서 양보해 주는 것이니 그리 아시오. 극천문이 잘되어야 나도 설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결단을 내린 것뿐이오. 이 영초를 캐다 준 제자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오? (중략)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우니 사부님께서 먼저 많은 것을 채워

www.kci.go.kr

넣으시라고 하였소."(황정검, 〈나노공학 선협전〉, 네이버 시리즈, 11화)

ㄱ)과 ㄴ)에서 주인공들은 이기적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이타적 주체로 나타난다. 인용문 ㄱ)에서 〈선협식 수련에 드래곤 하트를 더하면〉의 주인공 한유진은 지구 전체를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한다. 여기서 한유진은 지구적 스케일의 공동체를 돌보는 영웅에 다름 아니다. 한편 인용문 ㄴ)을 살펴보자면, 〈나노공학 선협전〉의 주인공 장소천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러한 희생정신은 연쇄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선순환을 일으켰다. 이는 "(공동체가) 잘되어야 나도 설 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작동한 결과다.

여기서도 이타적인 주체들은 선협물의 플롯을 굴절시킨다. 일반적인 선협물에서 주인공의 목표는 진선이라는 초월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협식 수련에 드래곤 하트를 더하면〉의 주인공의 목표는 전지구적 차원의 재앙을 막는 데 있다. 한편 〈나노공학 선협전〉의 주인공은 공동체의 성장이 자기 자신의 성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 〈나노공학 선협전〉은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인물의 스토리텔링으로 전개된다.

정리하자면 한국 선협물은 일반적인 중국 선협물의 장르 법칙을 일부 변형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색깔의 스토리텔링을 연출하고 있다. 중국 선협물에서는 가혹한 경쟁체제를 돌파하는 이기적인 개인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한국 선협물에서는 가혹한 경쟁체제를 돌파하는 이타적인 개인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러한 한국 선협물의 의의는 총 두 가지 차원에서 서술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한국 선협물은 중국 선협물의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대

www.kci.go.kr

안적인 상상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선협물이 무한성장과 무한경쟁에 몰두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면, 한국 선협물은 바로 그러한 자본주의적 세계 및 주체성을 비판하는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 선협물은 자본주의 너머의 대안 서사(alternative narrative)의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

둘째, 한국 선협물의 대안적 상상력은 다만 한 창작자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계속해서 자신의 경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장르적 힘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선협물의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은 중국 선협물의 매너리즘을 탈피하여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창출하려고 하는 창작자의 욕망과 공명하고 있다.

한국 선협물은 대부분 중국 선협물에 대한 메타 장르적 성격을 가진다. 〈회귀수선전〉과 〈선협식 수련에 드래곤 하트를 더하면〉은 중국 선협물의 세계에 차원이동한 인물이 주인공이다. 〈나노공학 선협전〉, 〈선협에서 상태창 개발하기〉, 〈선협의 뱀이 되었다〉는 선협의 세계에 환생한 인물을 다룬다. 즉, 이러한 인물들은 전형적인 장르의 세계로 이동하여, 그 장르가 가진 전형적 법칙들을 다른 방식으로 굴절시키거나 쇄신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 선협물은 장르에 대한 이야기, 선협물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웹소설이 과거의 장르소설들을 재료 삼아 수행하였던, 바로 그러한 작업을 중국 선협물을 대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27]

정리하자면 한국 웹소설이 수행하고 있는 두 개의 '대안 서사'는 상호관

27) 유인혁은 한국 웹소설이 과거 장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혁신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책빙의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0, 77-102쪽.)

www.kci.go.kr

련적이다. 한국 웹소설 선협물이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의 전형성을 비트는 것은, 정확히 장르의 매너리즘을 쇄신하고자 하는 예술적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이때 하나의 예술작품이 제시하는 현실세계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은, 정확히 장르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예술적 운동성의 지평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4. 나가며

지금까지 중국 선협물과 한국 선협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선협물은 본래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와 그에 적합한 주체성을 제시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서사를 부분적으로 굴절시킴으로써, 그 주제의식 자체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수용이 이루어졌다. 이때 한국 선협물이 중국 선협물의 장르법칙을 굴절시키는 것과, 정치적·사회적으로 대안적인 주제를 제시하는 것은, 서로 긴밀히 공명하며 이루어졌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웹소설이라고 하는 상업문화에 속한 형식들이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또한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선협물은 전형적인 이야기를 비틀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 세계의 부당하면서도 전형적인 법칙들을 상대화하고 있었다. 이렇듯 형식적인 굴절과 사회적인 대안적 상상력을 결합하는 방식은, 한국 웹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에 다름 아니다.[28]

정리하자면 이 글은 하나의 장르가 새로운 환경적 조건에서 번역될 때,

28) 유인혁, 앞의 글.

www.kci.go.kr

형식과 내용이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변형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 글은 웹소설이라는 상업적 스토리텔링이 신자유주의적 세계상을 재현하는 동시에, 그것을 비틀고 대안을 모색하는 문화적 실천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럼으로써 웹소설 연구가 장르론과 사회사적 독법을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웹소설이 주어진 세계와 관습을 단순히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활력있는 글쓰기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엄청난, 〈회귀수선전〉, 네이버 시리즈, 2023-2026.

오늘오후에, 〈선협식 수련에 드래곤 하트를 더하면〉, 네이버 시리즈, 2025-2026.

왕위, 〈학사신공〉, 카카오페이지, 2022-2026.

이근, 〈선역〉, 네이버 시리즈, 2018-2020.

재미혼, 〈선협에서 상태창 개발하기〉, 네이버 시리즈, 2025-2026.

판다공자, 〈선협의 뱀이 되었다〉, 네이버 시리즈, 2025-2026.

황정검, 〈나노공학 선협전〉, 네이버 시리즈, 2023-2026.

2. 논문과 단행본

류호현, 「선협(仙俠)의 위상변화와 확장적 스토리텔링 전략 — 세계 창조 기술로서의 선협」, 『중국학논총』 제73호, 중국학연구소, 2021, 215-240쪽.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책빙의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0, 77-102쪽.

조형래, 「게임 판타지 웹소설의 정동적 메커니즘 : 『나 혼자만 레벨업』을 통해 본 후기 자본주의적 주체성의 재구성」, 『동서인문학』 제69호, 동서인문학회, 2025, 161-189쪽.

최재용, 「의/협의 변천사— 최근 중국 인터넷 '선협소설'에서의 의/협 개념」, 『중국소설논총』 제44호, 한국중국소설학회, 2014, 311-327쪽.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옮김, 길, 2010.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심세광 옮김, 난장, 2012.

앨빈 소·인화 츄, 「중국의 국가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모순」, 『아시아 리뷰』 제6권 2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7, 121-142쪽.

Heather Inwood, "What's in a Game? Transmedia Storytelling and the Web-Game Genre of Online Chinese Popular Fiction", *Asia Pacific Perspectives* 12(2), 2014, pp.6-29.

www.kci.go.kr

Morgan Yu Hao, “Cultivation games and cosmotechnics: Reimagining Sinofuturism in Chinese cultivation narratives”, *Global Media and China*, 11(2), 2026, pp.267-282.

Shih-chen Chao, “The Re-Institutionalisation of Popular Fiction: The Internet and a New Model of Popular Fiction Prosumption in China”, *Journal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3, 2013, pp.1-38.

Xinkai Huang, “To Become Immortal: Chinese Fantasy Literature Onlin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XX: 2, 2011, pp.119-130.

Zhange Ni, “Xiuzhen(Immortality Cultivation) Fantasy : Science, Religion, and the Novels of Magic/Superstition in Contemporary China”, *Religions* 11, 2020, pp.1-24.

3. 기타 자료

www.webnovel.com

www.qidian.com

www.wuxiaworld.com

www.kci.go.kr

Abstract

The Reception and Transformation of Chinese Xianxia in Korean Web Novels
- Focusing on the Reconfiguration of Neoliberal Narratives

Yu, In-Hyeok(Jeonju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reconstruct the ways in which Korean web novels have appropriated xianxia (仙俠物), an emerging genre in China, and to examine the formal and thematic inflections that occur in this process. By first identifying how Chinese xianxia fiction represents capitalist dystopia and then comparing it with the ways in which Korean xianxia fiction inherits and transforms these narrative conventions, this study seeks to elucidate the forms of translation that arise when a genre crosses national borders.

To this end, I first identify four major narrative conventions of Chinese xianxia fiction. First, xianxia narratives primarily center on the stories of young people without capital who achieve dramatic reversals of fortune. Second, the system of cultivation (修道) in xianxia is highly systematized, and this system drives a developmental narrative in which protagonists progress through a series of successive stages. Third, the cultivation and growth of practitioners take place within a harsh system of competition. Fourth, protagonists in xianxia typically assume the form of self-interested individuals who devote themselves to personal growth and competition. These characteristics are interpreted as a dystopian representation of the neoliberal world.

I then demonstrate that Korean xianxia fiction largely inherits the first three conventions while transforming the fourth—the figure of the “self-interested individual”—into an altruistic character type. I further examine how this thematic transformation affects the genre’s broader thematic orientation. In doing so, I

www.kci.go.kr

demonstrate that Korean xianxia fiction, by modifying certain narrative conventions of Chinese xianxia, effectively appropriates and reworks its vision of capitalist dystopia.

This article is significant in that it demonstrates concretely how the form and content of a narrative genre interact and transform one another when the genre is translated into new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ontexts. It also demonstrates that web novels, as a form of commercial storytelling, constitute a cultural practice that simultaneously represents the neoliberal world and subverts aspects of that representation. In this way, the study seeks to broaden the scope of economic and soci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web novels.

(Keywords: Xianxia, Web Novels, Alternative Narrative, Neoliberalism, Dystopia)

논문투고일 : 2026년 9월 4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0월 13일
수정완료일 : 2026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8일

www.kci.go.kr